



산이 있고, 절이 있는 자연휴양림을 찾아심신의 휴식도 취하고, 불심도 가다듬어 보자.

이런 피서 때요!

# 자연휴양림서 세상사 잠시 휴식

본격적인 여름 휴가(休暇)철이다.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산이 있고, 숲이 있고, 고찰이 있는 가까운 자연휴양림을 찾아가자. 전국 80여 자연휴양림 가운데 상당수가 사찰과 인접해 있어, 몸과 마음의 휴식도 취하고 불심도 닦으려는 불자들에게는 최적의 여름 휴양지다.

가족과 함께 뜻뜻한 나무 내음과 흙냄새 가득한 숲 속을 거닐며, 나뭇잎 속삭이는 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한발 한발 오솔길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복잡한 세상사를 떠나 자연과 하나되어 쉬쉬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자신의 존재조차도 잊게 될 것이다.

### 7km 원시림 계곡 장관

**미천굴 휴양림** 오대산 북쪽에서 자리잡은 골 깊은 청정계곡 미천굴에는 아름다운 계곡과 깨끗한 물을 품고 있는 미천굴 자연휴양림이 있다. 계곡의 폭이 그리 넓진 않지만 야기자기하고 맑은 계곡이 길게 이어지는데, 매표소에서 시작해 장장 7km에 이르는 원시림 계곡이 장관이다. 이 미천굴 자연휴양림 내에는 신라의 고찰터인 선림원이 있다. 선림원은 804년에 창건된 사찰로 크게 번창했으나 10세기 경 큰 홍수와 산사태로 매몰되었다 한다. 미천굴(米川谷)이란 이름도 선림원이 한창 번창할 때 스님들에게 공양할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면 쌀뜨물이 무려 20리나 흘러내려 갔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건물 초석과 삼층석탑, 석등 그리고 부도와 탑비의 잔해가 남아있다. 휴양림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해수관세

음으로 유명한 낙산사가 있다. 033673-1806

### 신라고찰 유가사 참배

**비슬산 휴양림**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비슬산 자연휴양림은 조화봉(1,058m)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견봉(1,084m), 관기봉(989m)을 거느리고 있다. 집채만한 바위가 산기슭에 군락을 이루듯 펼쳐진 500~3,000평 크기의 수백 개 바위마당과 계곡 곳곳에 숨은 뜻 지리 깊은 기암괴석은 보는 이의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한다. 비슬산 대견봉 아래 신라 흥덕왕 2년 도성신사가 창건한 유가사가 있고, 휴양림 입구에 신라 고찰로 고려 공민왕 7년 진보법사가 중창한 소재사가 자리잡았다. 053614-5481

### 석남사·표충사 등 인접

**신불산 휴양림** 울산 울주군 신불산은 주봉이 1,209m로 봉도사가 위치한 휘서산과 가지산 중간지점의

고봉이다. 계곡은 기암괴석과 다양한 수종의 천연림으로 어우러져 아름답고, 청정수가 흐르는 계곡의 중간 지점에 유명한 과래소 폭포가 있다. 풍도사(휴양림에서 30km), 표충사(22km), 석남사(10km)와 인접해 있다. 0551383-6493

### 등산·산림욕 일석이조

**운문산 휴양림** 대구-경남 연안간 지방도 985호선변에 위치한 운문산 자연휴양림은 영남 7산의 하나로 손꼽히는 운문산(일명 호거산 1,188m) 기슭에 자리잡았다. 등산과 산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인근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인 운문사가 있다. 0541371-1323

### 지리산 속으로 여행

**중산 휴양림** 관광 자원 이 풍부한 지리산 지역의 등산과 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중산 자연휴양림은 사계절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갖기에 적당한 곳이다.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내 등반과 병행할 수 있는 중산 계곡과 자연습원, 법계사, 대원사가 인접되어 있으며, 하동의 쌍계사, 구례의 화엄사 및 지리산 온천 등이 휴양림과 연계돼 있다. 0531972-0675

이은자 기자 eisee@buddhapa.com

극단 예우... 8월 17일까지 바탕골소극장

## 무대에서 맛보는 '황금사과'

극단 예우는 89년 동양문화상 수상작품인 극작가 우봉규씨의 '황금사과'를 무대에 올린다.

존재하지도 않는 황금사과를 통해 민초들을 우롱하는 위정자들의 거짓과 욕망, 그리고 위선에 쌓인 인간들의 모습 등을 실감나게 보여 줌으로써 인간의 순수성을 찾고자 하는 작품이다. '황금사과'가 나오는 마을을 중심으로 오로지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촌장의 꼭두각시 몽수리와 협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촌장의 명으로 살인을 일삼는 몽수리와 죽은자들의 시신을 치우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협면,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일



면의 사건을 통해 인간 본성의 문제, 문명의 폐해 등을 건드린다는. 촌장의 명으로 살인을 일삼는 몽수리와 죽은자들의 시신을 치우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협면,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일

## '돌꽃이 피는 자리'

금강 스님 탁본전시회

8월 11일부터, 서귀포

땅끝마을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의 돌꽃문양 탁본전시회 '돌꽃이 피는 자리'가 8월 11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청재암현의 대비치리 갤러리에서 열린다.

미항사와 구산선문 등 고찰의 갖가지 문양들을 탁본에 담은 작업을 해 온 금강스님이 이번에는 고찰의 꽃문양만을 모아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돌에 핀 꽃의 향기를 전하



기 위해 마련한 전시다. 연일과 연꽃, 향아리에 담긴 이름 모를 꽃 등 눈여겨보지 않으면 살피지 못했을 사람의 돌꽃문양을 통해 우리 꽃들의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다. 064732-2020

## 이용배 창작판소리 '사명대사 일대기'

8월 15일 속초문화회관

우리 소리에 불교의 가르침 담기에 힘써 온 원로 국악인 이용배씨가 창작판소리 '사명대사 일대기' 공연을 8월 15일 오후 8시 강원도 속초문화회관에서 갖는다.

이씨가 직접 작정한 사명대사 일대기는 스님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승과급제, 깨달음, 운수행, 서산대사와의 만남, 일본과의 강화 조약, 열반 등을 구성한 판소리로 전담한다.

74세의 고령인 이씨는 "승군장인 사명대사의 구국행(救國行)과 지극한 불심을 광복을 맞아 되새기고자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판소리 마지막 부분에 출연자와 관객이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회향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마무리된다. 사명대사 일대기는 지난 97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초연된 바 있다. 033632-9800



김흥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김성동의 소설 <꿈>의 줄거리는 이렇다. 주인공 능현은 28세의 수좌로 은축사(銀竹寺)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앞에 명문여대 미대생인 정희남이 나타나자 마음이 흔들린다. 애뜻한 젊은 만남 끝에 서울로 돌아간 희남은 능현에게 소포를 보내오는데, 그 속에는 달케의 <문학을 지망하는 청년에게>라는 책이 들어있었고 속표지 여백에는 "스님께서 꼭 이 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 제가 보낸 책을 보내드리오니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라는 글이 쓰여있었다. 그 날 이후 수좌 능현의 화두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듯?'에서 '이 책을 보내는 뜻은 무엇인가(如何是 送冊 的 大意呢?)'로 바뀐다. 마침내 그 뜻을 깨쳤으니, 바로 '문학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우연히 종교소설 현상모집 광고를 본 능현은 마감 직전 하루 낮 하루 밤만에 소설 '꼭박조(木樛鳥)'를 완성하고 원고를 보낸다. 그 글은 새해 1월 1일자 신문에 '종교의 현대적 고민을 드러내 보였다'는 평과 함께 당선적으로 게재된다. 그러나 얼마 후 능현은 '방황하는 승려를 주인공 삼아 절 집인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킨 최'로 감찰원의 출두 통지서를 받고, 결국 제적당하고 만다.

### 김성동 '꿈' (3)

### 수좌와 여대생 애뜻한 만남 꿈깨고 나니...

능현은 희남에게 반야라는 법명을 지어주고, 그녀는 능현의 문학적 재능을 살리기 위해 공양주가 되어 주기로 자청하고 함께 방장산 불가득굴로 떠난다. 꿈같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능현이 버섯을 따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반야는 떠나고 없었다. 두고 간 종이엔 연필로 그려진 능현의 얼굴과 여백의 글씨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정다 운녀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여하시 휴연장(何處在?) 반야보살 하처재(何處在?)? 미친 듯이 온산을 헤매는 능현 그렇게 또 허무한 세월이 흐르니 살며니 마침내 멀리 반야를 발견한다. 능현은 그녀를 잡으려고 뛰어가다 그만 나무뿔기에 발이 걸려 돌에 이마를 찌고 만다.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난다. 그것은 잠입 엿볼 한 자락을 마친 다음 찢은 한 방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꾸었던 꿈이었다. 능현은 잠결에 쇠북에 이마를 부딪쳤던 것이다. 그렇게 목 타는 그리움으로 슬피하는 창흔의 한 세월이 흘러 가버린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능현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있었다. 이름 모르는 그 여대생을 다시 한 번 만나게 해달라는 서원을 세우고 관음기도에 들어갔던 능현은 꿈에서 깨어난 직후 출연하 은축사를 떠난다. 그가 간 곳은 아무도 몰랐다.

한편, 이 소설은 두 가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끝에 '사족'을 달고 있는 것이다. 능현은 서울로 올라와 사람 찾는 광고를 내었다. 세 번째 광고를 내었을 때, 희남이 약속장소에 나왔다. "스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드리기엔 너무 세속적인 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곧 결혼해서 버리로 간다고 말한다. 불가득굴로 돌아온 능현은 종이 위에 '꿈'이라고 쓰고 반야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한다. (계속)

■문학평론가

#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수복종수와 방상기능은 일반편의 수복, 두종이나 비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5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성유와 동물성성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중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